

전국체전 4일째 53개... 메달사냥 '순항'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김수경 금 등 하룻동안 4개 메달 추가
축구·복싱·탁구·테니스 종목에서 8개 확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4일째인 7일 역도의 김수경이 개인통산 50번째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도에 이번 대회 21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제주 도선수단은 7일 오후 6시 현재 53개의 메달(금 21, 은 11, 동 21)을 획득하고, 동메달 8개를 확보해 목표 초과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김수경(제주도청)은 7일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역도 여일반부 64kg급 용상 경기에서 122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인상에서 90kg을 들어 9위에 머문 김수경은 주특기인 용상 경기 3차 시도에서 122kg을 성공시켜 120kg에 그친 박민영(경남 김해시청)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이날 잠실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육상 여일반부 멀리뛰기에서는 정순옥(제주시청)이 5m90을 뛰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에서는 남대부 그레코로만형 77kg 급에 출전한 이장원(제주국제대 4)

이 동메달을 차지했으며, 그레코로만형 67kg급의 안형균(제주국제대 4)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이날 SETEC에서 펼쳐진 복싱 경기에서는 남대부 미들급의 박지용(웅인대 2)이 나공훈(강원)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해 동메달을 확보했으며, 남고부 웰터급의 이신우(복싱마스터2)도 차해성(경남)을 제압해 4강에 진출했다. 또한 서초종합체육관에서 진행된 탁구 여일반부 단체전 8강 경기에서는 제주(대한항공)가 인천(포스코)을 이겨 동메달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6일에는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일반부 10m싱크로다이빙에서 고현주·문나윤(제주도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축구 남대부의 제주국제대, 복싱 남고부 미들급 허정재(남녕고 3)·남일반부 라이트급 최해주(서귀포시청)·남일반부 라이트헤비급 박상규(서귀포시청), 테니스 여대부 개인전의 임은지(한국체대 4)가 각각 동메달을 확보했다.



7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복싱 남대부 라이트웰터급 8강전에서 제주 대표 전동훈(웅인대 3, 사진 오른쪽)이 최민성(강원)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도체육회 제공

대회 5일째인 8일에는 2003년 제주한라대 이후 16년 만에 남대부 축구에서 동메달을 확보한 제주국제대가 오전 10시 목동 주경기장에서 충북 대표인 건국대와 결승 진출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육상과 수영, 씨름, 레슬링, 유도, 태권도, 복싱 등에서도 메달에 도전한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7일 제주선수단 메달 획득 현황

▶금메달 ▷역도=여일반부 64kg급

용상 김수경(제주도청, 122kg) ▷수영(6일 경기)=여일반부 10m싱크로 고현주·문나윤(295.20점) ▶은메달 ▷육상=여일반부 멀리뛰기 정순옥(5m90) ▷산악(6일 경기)=남일반부 속도 이웅수(6초03) ▶동메달 ▷레슬링=남대부 그레코로만형 77kg 이장원(제주국제대 4), 남대부 그레코로만형 67kg 안형균(제주국제대 4) ▷육상(6일 경기)=남고부 멀리뛰기 이근우(남녕고 3, 7m33) ▷역도(6일 경기)=남고부 109kg 이상급 웅상 고승현(남녕고 3, 187kg).



'제주 역도의 별' 김수경이 7일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전 역도 여일반부 64kg급 용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사진=제주도체육회 제공

'역도의 별' 김수경 금메달 피날레

개인통산 50번째 메달 대기록
용상 122kg 성공 은퇴식 자축

'제주 역도의 별' 김수경(제주도청)이 개인통산 50번째 메달 색깔을 금빛으로 장식하며 은퇴식을 자축했다.

김수경은 7일 서울 올림픽역도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일반부 64kg급 용상 경기에서 122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 의사를 밝힌 김수경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1년 전국체전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뒤 19년 동안 금메달 44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포함해 모두 50개의 메달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김수경은 이날 인상 경기에서 지

난해 전국체전보다 6kg 적은 90kg을 들어 14명의 선수 중 9위에 오르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주특기인 용상 경기에서는 1차 115kg에 이어 2차 119kg까지 들어올려 인상권에 진입했다.

김수경이 2차까지 성공한 뒤 3차에 122kg을 신청하자 경쟁 선수들은 이미 신청했던 점수를 변경하면서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했다. 특히 박민영(경남 김해시청)이 1차에서 김수경과 같은 115kg에 이어 2차에서는 1kg 많은 120kg을 성공시킬 때만 해도 김수경의 금메달 꿈은 멀어지는 듯했다.

더구나 김수경이 3차에서 122kg을 성공시키면서 은메달을 확보하자 박민영은 3차 때 125kg에서 123kg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박민영이 3차에 실패해 120kg에 머물러 금메달

영광은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간 김수경에게 돌아갔다.

이날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람석에서는 김수경의 후배들이 "제주 역도의 별 김수경 선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이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어 선배의 은퇴식을 축하했다. 김수경은 경기 후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성원해준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실했다.

김수경은 "올해 전국체전이 선수로서 마지막 대회여서 동메달만 차지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성원해준 도민들에게 금메달로 보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역도 여일반부 64kg급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30대는 1985년생 김수경뿐이었다. 김수경은 자신에 이어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선수보다 9살 많았으며, 가장 적은 선수보다 15살이 더 많았다.

표성준기자



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 류현진이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회장 강철만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한번 칠하면 100% 방수되고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방수페인트

특징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타일면: 이도아구점빌딩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워터스틸라 12차, 미전빌라

자외선에 쏘(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율리 가정집 설치

초기점화 30초내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성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뎀방수주임바랍니다.